

##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동남보건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의 인식조사

이 선 경, 성 환 경, 이 규 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및 구강생물연구소, 동남보건대학 치기공과\*

## Research of investigation of Dongnam Health College's dental technology students about health educator systems

Sun-Kyoung Lee, Hwan-Kyung Sung, Gyu-Sun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 Institute of Oral Biology,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of investigation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about health educator systems.

**Methods:** A survey was performed on 102 subjects in March in 2010. There search tool was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descriptive, chi-squar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y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12.0.

**Results:** Respondent most did not know about health educator systems. But, positive opinion for it. And necessity about education appeared high in subjects. There are a lot of interests in health educator system(p=0.000).

**Conclusion:** We thought that interes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rise more.

◉Key words : health educator, health promotion

교신저자	성명	이 선 경	전화	02)961-0344	E-mail	oksk3737@hanmail.net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510호					
접수일	2010. 9. 6		수정일	2010. 9. 12		확정일	2010. 9. 26

## I. 서 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는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정성화 등, 2005). 최근에는 사회 변화와 질병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체의 건강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만인이 똑같은 건강을 향유하기를 바라는 날이 갈수록 요구되어지고 있다(김모임, 1992). 또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증대하면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국민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보건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78년부터 계속 주창해온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적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서 단순한 보건지식의 전달이 아닌 건강과 관련된 행태를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전문적인 보건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역할이 강조된다. 건강증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높이려면 주요사업인 생활습관 질환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행태 수준을 높여 건강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사업을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보건교육 전문 인력, 즉 보건교육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보건소, 산업장, 의료기관, 학교, 민간 보건의료 및 복지단체, 보건의료관련 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 활용되어야 한다(김기수, 2010).

보건교육사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육전략과 정책, 진행, 중재, 시스템의 발전을 돕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훈련받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정의된다(미국보건교육정책위원회, 2001). 또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유일한 기능을 가지며,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상태와 환경을 증진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김혜경 등, 2009). Simonds(1976)는 “보건교육사는 항상 개인과 지역사회 보건문제를 고려하면서 일반 대중을 교육시키고 보건 분야에서 다른 훈련에 의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진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보건교육사가 보건교육 전문가로서 관련기관에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건교육사를 CHES(Certified Health Education Specialist) 또는 Health Educator로 지칭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사는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전문 인력으로써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지역보건교육사, 학교보건교육사, 산업장 보건교육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보건교육사는 건강교육의 실천과 그 평가를 행하는 실천건강교육사와 실천건강교육사를 양성 지도하는 전문건강교육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조건은 소정의 연수를 받고 특정 비영리조직으로 발족된 “일본건강교육사 양성기구”(2003년 9월)의 인정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일본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미국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아 지역보건교육사, 학교보건교육사, 산업장 보건교육사 등 미국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가 주도하고 전국보건관리학 교육협의회가 협조하여 개발된 보건교육사 양성 교과과정으로 보건교육사 양성을 시작하였다. 과정수료 후 자체시험 평가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이 부여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하여 2003년 9월 29일 국회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화가 법률 6983호로 공포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었다(김혜경 등, 2009). 그리고 2010년 3월 처음으로 보건교육사 자격 시험이 국가시험으로 치러졌다. 보건교육사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치기공과를 졸업하고도 직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 이탈하는 인력에게 보건교육사제도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사료된다. 보건관련교육을 수강한 치기공과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중복되는 교과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직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치기공과사에게 교육과정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데에서 이 제도가 치기공과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치기공과에서 보건교육사 과목을 교육받는 학생들의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향후 치기공과에 보건교육사 교육과목의 도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20개 치기공과 설립 대학 중 유일하게 보건교육사 제도의 교육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동남보건대학 치기공과 1학년 10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2일 하루 동안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간단한 설명을 통해 자기기입법으로 시행하였으며, 무응답문항이나 미기입 사항이 많은 설문은 발견되지 않아 모두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설문내용은 연구목적과 방향에 맞게 자체 제작하였으

며, Likert's 5 scale(최저 1점, 최고 5점)를 이용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 내용은 10문항으로 Cronbach's  $\alpha=0.824$ 로 나타났다.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 내용 중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해 들어 본적 있음,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대해 들어 본적 있음, 보건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음은 "인식"(Cronbach's  $\alpha=0.718$ )으로 표현하였고,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음,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음은 "관심"(Cronbach's  $\alpha=0.924$ )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할 의향 있음,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생각 있음은 "국가시험 응시의향"(Cronbach's  $\alpha=0.921$ )으로 표현하였고,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됨,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자신에게 필요함은 "필요성"(Cronbach's  $\alpha=0.809$ )으로 표현하였다 (표 1).

표 1. 설문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

변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인식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	10	0.824
	문1.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해 들어 본적 있음	3	0.718
	문2.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대해 들어 본적 있음		
관심	문3. 보건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음		
	문4.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음	2	0.924
	문5.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음		
국가시험 응시의향	문6.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할 의향 있음	2	0.921
	문7.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생각 있음		
필요성	문8.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자신에게 도움 됨	3	0.809
	문9.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문10.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자신에게 필요함		

### 3. 통계적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처리와 결과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ver. 12.0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반사항

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 및 관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으며,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에 대한 응답내용, 일반사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 및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문항에서는 '전혀 모른다' 부터 '매우 잘안다' 까지 5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혀 모른다’와 ‘모른다’를 합하여 “아니오, 모른다, 관심 없다”로 표현하였고, ‘안다’와 “매우 잘안다’를 합하여 ”예, 안다, 관심 있다“로 이분화하여 표현하였다.

### III. 연구성적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4.9%로 여자 45.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19.6세, 거주지는 경기도가 71.6%로 나타났으며, 출신고교는 인문계가 76.5%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9.6%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자	56(54.9)
	여자	46(45.1)
연령*		19.6(2.1)
거주지	서울시	15(14.7)
	경기도	73(71.6)
	기타	14(13.7)

출신고교	인문계	78(76.5)
	실업계	16(15.7)
	기타	8(7.9)
봉사활동경험	있다	71(69.6)
	없다	31(30.4)
계		102(100)

\*연령은 평균과 표준편차임.

#### 2.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지는 표 3과 표 4와 같다.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은 57.9%로 나타났고,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됨’은 52.9%로 나타났으며,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음’은 50.0%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시험 응시의향은 Likert's 5 scale 평균 3.4로 나타났으며, 인식은 평균 2.1로 나타났다. 보건교육사 자격 취득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보건 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있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에 대한 응답내용

	아니오 빈도(백분율)	예 빈도(백분율)
문1.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해 들어 본적 있음	71(69.6)	18(17.4)
문2.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대해 들어 본적 있음	79(77.5)	17(16.7)
문3. 보건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음	79(77.5)	7(6.9)
문4.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음	29(28.4)	37(36.3)
문5.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음	27(26.5)	40(39.2)
문6.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할 의향 있음	17(16.7)	51(50.0)
문7.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생각 있음	23(22.5)	50(49.0)
문8.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자신에게 도움 됨	7(6.9)	54(52.9)
문9.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10(9.8)	59(57.9)
문10.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이 자신에게 필요함	27(26.4)	29(28.5)

전체표본 102명 중,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을 표에서 제외하여 대상자의 합이 102명이 되지 않음.

표 4.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변인의 평균

	평균	표준편차
인식(문1, 2, 3)	2.0	0.9
관심(문4, 5)	3.1	0.9
국가시험 응시의향(문6, 7)	3.4	1.0
필요성(문8, 9, 10)	3.4	0.7

3. 일반사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 및 관심

일반사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에서 남자는

13.5%, 여자는 29.7%( $p=0.045$ )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가 경기도일 때, 21.0%가 보건교육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48$ )(표 5). 또한 일반사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도의 관심에서는 연령이 20세 미만에서는 27.0%, 20세 이상에서는 50.0%가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26$ ), 출신고교에 따라서는 실업계 51.2%, 인문계 33.3%가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27$ )(표 6).

표 5. 일반사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

		모른다 빈도(백분율)	안다 빈도(백분율)	p
성별	남자	45(86.5)	7(13.5)	0.045
	여자	26(70.3)	11(29.7)	
연령	20세 미만	54(83.1)	11(16.9)	0.163
	20세 이상	17(70.8)	7(29.2)	
거주지	서울시	12(92.3)	1(7.7)	0.048
	경기도	49(79.0)	13(21.0)	
	기타	10(71.4)	4(28.6)	
출신고교	인문계	70(89.7)	8(10.3)	0.614
	실업계	16(100.0)	0(0.0)	
	기타	8(100.0)	0(0.0)	
봉사활동경험	있다	64(90.1)	7(9.9)	0.237
	없다	30(96.8)	1(3.2)	

교차분석에 의해 계산됨.  
전체표본 102명 중,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을 표에서 제외하여 대상자의 합이 102명이 되지 않음.

표 6. 일반사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도의 관심

		관심 없다 빈도(백분율)	관심 있다 빈도(백분율)	p
성별	남자	36(64.3)	20(35.7)	0.363
	여자	32(69.6)	14(30.4)	
연령	20세 미만	54(73.0)	20(27.0)	0.026
	20세 이상	14(50.0)	14(50.0)	
거주지	서울시	10(66.7)	5(33.3)	0.991
	경기도	49(67.1)	24(32.9)	
	기타	9(64.3)	5(35.7)	
출신고교	인문계	52(66.7)	26(33.3)	0.027
	실업계	11(68.8)	5(31.2)	
	기타	5(62.5)	3(37.5)	
봉사활동경험	있다	49(9.0)	22(31.0)	0.447
	없다	19(61.3)	12(38.7)	

교차분석에 의해 계산됨.  
전체표본 102명 중,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을 표에서 제외하여 대상자의 합이 102명이 되지 않음.

4.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심이 많을 수록 국가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높았고( $r=0.698, p=0.000$ ), 관심이 많을

수록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r=0.698, p=0.000$ ). 그리고 국가시험 응시의향이 높을 수록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r=0.731, p=0.000$ ).

표 7.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

	인 식	관 심	국가시험 응시의향	필요성
인식	1			
관심	0.010	1		
국가시험 응시의향	0.002	0.699**	1	
필요성	-0.017	0.698**	0.731**	1

\*\* $p<0.00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에 의해 계산됨)

IV. 고찰 및 제언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보건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만성질환의 장기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하는 국가적 노력이 구체화되었다(김명, 1998; 2008). 이처럼 적극적이고 범국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가 확대·발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걸쳐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건교육사 제도는 그 시기적, 사회적 의미가 크다(김광기, 2008).

본 연구에서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는 Likert's 5 scale(최소 1점, 최대 5점) 평균 2.0으로 다소 낮았으나, 보건교육사에 대한 필요성은 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는 낮으나,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78년부터 계속 주창해온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할 전문적인 보건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며, 남철현(2006)의 연구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교육사의 활동이 필수적이어서 건강증진법에 국가자격으로 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같은 의견이다.

현재 수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

업은 보건소 내 인력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건강과 건강결정요인을 보는 시각이 생태학적 관점이 주도적인데, 이는 바로 잡아질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은 개인과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각적인 환경과 행동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생태학적 모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McKenzie & Smeltzer, 2001). 또한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다각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그 기능상의 한계를 정리하여 그 한계 밖의 부분들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다부문적, 다차원적 접근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부문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그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다(이규식, 2006). 보건교육사 제도는 다른 국가자격제도와는 달리 특정 전공영역에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 간호, 영양, 체육, 치위생, 물리치료 등 건강증진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전공 영역에 폭넓게 자격이 주어지기 때에 응시자의 다양성이 존재하다(김광기, 2008). 현재 치과공과에서도 수도권 한 개 대학에 보건교육사를 위한 교육제도가 시행중이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동안 치과기공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정기호(2001), 강열모(2003)는 치과 병·의원기공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약 과반수의 치과기공사들이 직무에 관하여 만족하고 있었고, 과반수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심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근무 시간이 적고 작업환경이 좋을수록, 그리고 보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치과기공사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직률이 높고(민병국, 1990),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과다업무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발전의 투자와 건강, 여가선용의 기회도 전무한 상태였다.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은 근무시간의 과중, 휴식시간의 부족, 여가생활의 기회를 줄여, 후생 복지, 급여, 작업환경 등이 직무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김연수, 1992), 이러한 요인은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가져와 치과기공사들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치과기공사들은 치과재료상이나 치과위생사로의 전환 등 치과와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업무를 찾아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치기공과를 졸업하고도 직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 이탈하는 인력에게 보건교육사제도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사료된다. 보건관련교육을 수강한 치기공과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중복되는 교과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직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치과기공사에게 교육과정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데에서 이 제도가 치기공과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제 출발하는 보건교육사제도는 아직 보건 분야에서 그 역할이나 업무영역에 대한 분리가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는 보건소나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 분야의 일반직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것인데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교육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의 인식전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가 자격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자격자를 배출한다는 것은 그 영역의 전문능력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향후 보건교육사 제도에 사용될 전문 인력은 더욱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보건교육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자료수집 부분에서 한 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표성이 부족하다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의 치기공과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에 대한 응답내용에서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역할, 국가자격시험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현재 '모른다'는 의견이 전체의 70%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는 50% 이상이 긍정의 의견을 나타냈다.
2. 보건교육사 제도의 인지정도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 출신교고에 상관없이 모두 보건교육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3. 보건교육사 제도의 관심정도에서는 20세 미만보다 20세 이상에서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출신교고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4. 보건교육사 제도에 관심이 많을수록 국가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높았고, 관심이 많을수록 치기공과에서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시험 응시의향이 높을수록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치기공과 학생들은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교육과목으로서의 필요성이나 향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학생들

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리라 사료된다. 치과기공사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력에게 보건 분야의 직무를 살리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치기공과에 보건교육사 교육과목의 도입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열모. 치과기공사의 직무 만족 실태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 김기수. [http://www.ches.or.kr/edu/edu\\_01.htm](http://www.ches.or.kr/edu/edu_01.htm), 2010.
- 김광기.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가 제안하는 보건교육사 제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총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 김광기, 김건엽, 김영복, 김혜경, 박경옥, 박천만, 이무식. 보건교육사 제도정립의 방향.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2), 73-89, 2008.
- 김명, 고승덕, 김영복. 국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교육사 자격인증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5(2), 67-79, 1998.
- 김명.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기능. 2008 대한보건협회 보건인의날 기념학술대회자료집. 2008. 4.
- 김모임. 간호:미래세기의 도전. 간호학탐구지, 1(1), 15-25, 1992.
- 김연수. 한국치과기공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2.
- 김혜경, 고승덕, 김영복, 김은주, 박경옥, 박재성, 박천만, 배성권, 손애리, 유승현, 조형원, 황 명희송.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교육학, 한미의학, 3-23, 2009.
- 남철현. 보건교육사 양성 및 활용방안. 한국보건교육학회지, 23(2), 141-161, 2006.
- 민병국. 치과기공사의 이직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12(1), 18, 1990.
- 심정석, 이선경. 서울지역 치과기공사의 동기부여 및 직무만족도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2(1), 25-34, 2010.
- 이규식. 국민건강증진사업 10년의 성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1), 143-171, 2006.
- 정기호. 병·의원기공실과 개인기공소 치과기공사의 직무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 정성화, 서영규, 손은영, 최연희, 송근배. 치과의료보조인력의 직무만족도와 관련 요인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9(3), 281-292, 2005.
- Simonds, T. Marking Health Education Work. Am J Pub Heal, 65, 1-49, 1976.
- McKenzie JF, Smeltzer JL.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3rd ed). Allyn and Bacon Publication, MA, 2001.